

[특집]

회칙 「모든 형제들」에 새겨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프란치스칸 전통*

■
김 일 득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한국 관구 영속적 양성 담당자·신부]

1. 서론
2. 회칙의 제목과 (모든 형제들, *Fratelli Tutti*) 최근 교회 가르침의 프란치스칸 맥락
3.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프란치스칸 전통
4. 회칙 「모든 형제들」과 프란치스칸 전통
 - 4.1. 형제애
 - 4.1.1. 형제애의 기초: 지극히 높은 선이신 하느님
 - 4.1.2. 피조물과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죄
 - 4.1.3. 무상성(*Gratuitas*)의 인간
 - 4.2. 공동선의 형제 공동체
 - 4.2.1. 형제성의 사회적 진화: 공동선
 - 4.2.2. 전체선과 공동선
5. 결론을 대신하여: 완성으로서의 구원

1. 서론

2020년 10월 3일, 교황 프란치스코(1936~)가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에 서명하자, 당시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총 봉사자 마이클 페리(Michael Perry, 1954~) 형제는 이 회칙이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015)에 이어 다시 한번 아시시의 가난뱅이의 말씀에 영감받아 작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회와 선한 의지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선사한 이 아름다운 선물에 기쁨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발표하였다.¹⁾ 이 기쁨은 비단 작은형제회 총 봉사자에게

* 이 글은 2021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프란치스칸 가족이 공감하는 것이었으며, 교황 프란치스코가 선출되던 때부터 교황이 프란치스칸적인 메시지를 발표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었다. 이탈리아어 제목으로 작성된 「찬미받으소서」와 「모든 형제들」 모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Francesco d'Assisi, 1181~1226)가 직접 말한 구절이 제목으로 채택되었고, 이는 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면면히 이어져 온 프란치스칸 전통이 현시대에도 여전히 의미 있고 유효한 영성과 해법을 담고 있음을 그 자체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이 프란치스칸 영성과 전통의 맥락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는 많은 이가 동의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 이에 본고는 회칙 「모든 형제들」에 새겨진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과 프란치스칸 전통의 흔적을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회칙 「모든 형제들」뿐 아니라 최근의 교황 가르침도 함께 다루어질 것이며, 주로 성 프란치스코의 글과 프란치스칸 전통의 맥락 안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형제들」과 프란치스칸 전통이 한목소리로 현대 사회에 전하는 함의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회칙의 제목과 (모든 형제들, *Fratelli Tutti*) 최근 교회 가르침의 프란치스칸 맥락

「모든 형제들」 각주 1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회칙의 제목은 성 프란치스코의 「권고들」 6장 1절에서 직접 인용한 것이다.²⁾ 작은

1) 마이클 페리의 전체 메시지는 다음에서 읽을 수 있다.

<https://ofm.org/blog/fratelli-tutti-message-of-the-minister-general/>(접속일: 2021.12.9).

2) 성 프란치스코의 「권고들」은 초기부터 라틴어 사본으로 전달되어 왔으며, 최근의 비판본에 따르면 이 구절은 “omnes fratres”로 표기되어 있다. 라틴어 본문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https://www.franciscantradition.org/francis-of-assisi-early-documents/the-saint/writings-of-francis/the-undated-writings/the-admonitions/147-fa-ed-1-page-131>(접속일: 2021.11.26).

형제회(프란치스코회) 한국 관구에서 번역한 판에서는 “모든 형제들이여”라고 번역되어 있다.³⁾ 성 프란치스코의 「권고들」은 모두 28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고들」이 작성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에게 향한 권면의 말씀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며, 그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은 ‘소유 없는 가난한 삶’에 관한 것이다. 또한 성 프란치스코가 작은 형제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서기가 받아 적은 글로 추정된다.⁴⁾ 성 프란치스코의 글에서 “모든 형제들이여”라는 표현은 프란치스코가 무언가를 권면하기 이전에 주의를 환기시키며 청자들의 집중을 끌어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작은 형제’라는 정체성을 살아가는 프란치스칸들의 성소와 소명을 ‘형제’라는 단어에 담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고, 모두가 한 ‘형제’라는 ‘작은형제회’의 기초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실제로 프란치스코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작은 형제들의 형제 됨의 성소를 강조한 바 있다. “아무도 장상이라고 부르지 말고, 반대로 모두가 똑같이 작은 형제들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발을 씻어 줄 것입니다.”⁵⁾ 성 프란치스코의 글에서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일일이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형제들에게 어떤 주제를 이야기 전에 형제들을 초대하는 역할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⁶⁾

3) Francesco d'Assisi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글』,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한국 관구 옮겨 엮음, 프란치스코 출판사, 2014, 275쪽.

4) 참조: William Short(윌리엄 쇼트), 『가난과 기쁨: 프란치스칸 전통』, 김일득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2017, 89쪽.

5)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202쪽.

6) 예컨대, 성 프란치스코는 전체 「형제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인사한다. “존경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과 보호자 형제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우리 형제회의 사제들과, 단순하고 순종적인 모든 형제들과, 맨 먼저 들 어온 형제들과, 최근에 들어온 형제들에게 [...]” 또한 같은 편지에서 프란치스코는 사제 직무에 부름 받은 형제들을 특정하여 초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기기도 하였다. “또한 나는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사제 형제들과 사제과 될 형제들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사제가 되기를 열망하는 형제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인준 받지 않은 수도규칙」 22장(형제들에게 주는 권고)에서도 “모든 형제들이여”라고 형제

회칙 「모든 형제들」이 성 프란치스코가 사용하였던 문장 자체를 제목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 회칙이 담지한 ‘프란치스코적’ 뿌리와 맥락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교회 가르침의 흐름을 짚어볼 때 이러한 프란치스코 맥락은 이미 이어지고 있었다. 예컨대, 2009년에 교황 베네딕토 16세(1927~)가 반포한 사회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2009)은 참되고 온전한 발전을 논하면서 프란치스코 전통이 전개해 온 ‘무상성’(Gratuitas)과 ‘형제성’(Fraternitas),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 경제적 적용과 실천 등 중세 프란치스코 경제의 중심 요소들을 그 핵심 메시지로 삼고 있다.⁷⁾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경제학자인 스테파노 자망니(Stefano Zamagni, 1943~)는 「진리 안의 사랑」의 신학적 뿌리가 프란치스코 전통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진리 안의 사랑」은 가톨릭 사회 교리 전통에서 처음으로 ‘형제성’이라는 경제 원칙이 경제 분야에 적용된 사례라고 말한다.⁸⁾

2015년에 교황 프란치스코가 반포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경우 「모든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성 프란치스코가 노래하던 문구를 그대로 회칙 제목으로 차용한 예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생애 말년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직접 가사와 음률을 붙여 「태양 형제의 노래」를 작곡하였다. 당시 프란치스코는 대낮의 태양 빛을 감당할

들을 초대하는 문구로 권고를 시작한다.

7) 「진리 안의 사랑」 36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거래 관계에서 형제애의 표현인 무상성의 원칙과 은총(증여)의 논리가 통상적인 경제 활동에 자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을 생각과 행동으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진리 안의 사랑」에 담긴 프란치스코적 맥락과 프란치스코 경제 전통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겠다. Stefano Zamagni, “Globalization: Guidance from Franciscan Economic Thought and Caritas in Veritate,” in *The True Wealth of Nations: Catholic Social Thought and Economic Life*, Daniel K. Finn(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Giacomo Todeschini, *Franciscan Wealth: From Voluntary Poverty to Market Society*, Donatella Melucci(trans.), Michael F. Cusato/ Jean-François Godet-Calogeras/ Daria Mitchell(eds.), New York: Franciscan Institute, 2009.; Martin Carbajo Nuñez, *A Free and Fraternal Economy: The Franciscan Perspective*, Phoenix, Arizona: Tau Publishing, 2017.; 김일득, 『프란치스코 경제: 그 중심 영성과 중세 프란치스코인들의 가르침과 실천, 그리고 현대 경제를 위한 응답』, 프란치스코출판사, 2016.

8) Cf. Stefano Zamagni, *op.cit.*, p.105.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눈병을 앓고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육체적인 질환으로 산 다미아노(San Damiano) 수도원 뒤편의 작고 어두운 거처에 기거하고 있었지만, 마치 피조물의 섬세함과 장대함과 아름다움을 몸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듯한 표현으로 이 피조물의 찬가를 작곡하였다.⁹⁾ 중세 움브리아어로 작성된 「태양 형제의 노래」는 “로다토 시 페르”(lodato si per)라는 반복적인 구절로 피조물을 통하여, 특히 우주의 4대 원소인 땅, 바람, 불, 물을 통하여 창조주 하느님을 찬미한다.¹⁰⁾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회칙의 제목으로 차용되었다. 제목뿐만 아니라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내용과 맥락도 프란치스칸적이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과 그가 전한 영감은 1항에서부터 언급되고 있다.¹¹⁾ 성 프란치스코의 이름으로 시작된 「찬미받으소서」는 프란치스코의 가난과 피조물 영성을 상기하는 가운데, 프란치스칸 전통에 속한 학자들의 영성과 가르침도 여러 곳에서 서술하고 있다.¹²⁾ 2009년의 경제 발전에 관한 사회회칙 「진리 안의 사랑」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졌던 ‘무상성’과 ‘형제성’ 역시 「찬미받으소서」에서 반복되고 있다.¹³⁾

2020년에 온 세상에 선포된 사회 회칙 「모든 형제들」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찬미받으소서」의 정신¹⁴⁾을 ‘한 배에 올라탄 공동 운명체’로, 그렇게 서로에게 밀접하게 연결된 공동 운명체라는 정신으로 이어간다.¹⁵⁾ 또한 교황 프란치스코는 「찬미받으소서」

9) Cf. Ilia Delio/ Keith Douglass Warner/ Pamela Wood, *Care for Creation: A Franciscan Spirituality of the Earth*, Cincinnati, Ohio: St. Anthony Messenger Press, p.81.

10) 윌리엄 쇼트, 앞의 책, 177쪽.

11) 「찬미받으소서」 1항: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라고 노래하셨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이 아름다운 찬가에서 우리의 공동의 집이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 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12) 예컨대, 대표적인 프란치스칸 학자 중 하나인 보나벤투라(1221~1274)의 사상의 경우 「찬미받으소서」 11항, 66항, 77항, 83항, 233항, 238항, 239항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인용되거나 함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3) 참조: 「찬미받으소서」, 11항, 82항, 92항, 201항, 220항, 221항, 228항, 237항,

14) 참조: 같은 책, 16항, 91항, 117항, 138항, 240항.

15) 참조: 「모든 형제들」, 32항.

와 마찬가지로 「모든 형제들」의 영감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게서 온 것임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힌다.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쓰도록 형제적 사랑, 단순함, 기쁨의 성인은,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하여 이 새로운 회칙을 쓰도록 세계 동기를 부여합니다.”¹⁶⁾ 나아가 교황 프란치스코는 회칙 초반부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글을 두 번 직접 인용하면서, 성 프란치스코가 제시하는 형제애와 인간에 대한 자세를 조명하고 있으며, 이집트 술탄과 성 프란치스코의 만남도 열린 형제애의 모범으로 제시한다.¹⁷⁾ 이처럼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전의 「진리 안의 사랑」과 「찬미받으소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의 해법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프란치스칸 전통에서 찾아 세상에 제시하고 있다.

3.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프란치스칸 전통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교황의 이름이 되었고 최근 교회 가르침의 주요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리고 그가 시작한 프란치스칸 전통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1181년 혹은 1182년에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프란치스코는 이전의 봉건 체계와는 전혀 달랐던 상업 도시 아시시의 격동, 서민 계층과 지배 계층 간의 반목(전쟁), 십자군 전쟁이 불러온 여러 종교적·사회적 맥락(그 중 하나가 한센병의 전파였다) 등을 깊이 경험하며 성장하였다. 청년 시절, 이웃 도시 페루자(Perugia)와의 전쟁에 참여하여 투옥되었고 이후 풀려나 병상 생활을 하였다. 이후 회개의 여정을 걷은 프란치스코는 처음에는 기도 생활 중에 낡은 성당을 수리하고 나환자들을 돌보는 평신도 회개자의 삶을 살았다. 이후 동료 형제들이 모이자 로마 교황으로부터 ‘복음을 따르는

16) 같은 책, 1항.

17) 참조: 같은 책, 1항, 3항.

삶의 양식'을 구두로 인준 받았다(1209년). 프란치스코와 동료 형제들은 지극하고도 완벽한 가난을 사는 가운데, 나환자들과 가난한 이들과 함께 손수 일하며 이제는 전혀 다른 안목으로 세상에 참여하였고, 복음 말씀에 따라 가난한 순례자와 나그네의 정신으로 많은 곳을 찾아 설교하였으며, 머지않아 수많은 젊은이들과 성직자들을 형제회 품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죽기 6년 전인 1220년, 프란치스코는 형제회의 지도자 역할에서 물러나 기도와 은둔의 삶에 집중하였다. 1223년에는 작은형제회의 수도 규칙이 공식적으로 인준되었고, 1224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흔(오상)을 몸에 새기게 되었으며, 1226년 10월 3일에 하느님 품으로 돌아갔다. 2년 후인 1228년, 프란치스코 살아생전부터 프란치스코의 친구요 조력자였던 우골리노 추기경이 이제는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 되어 프란치스코를 시성하였다.¹⁸⁾

성 프란치스코와 초기 동료 형제들이 시작한 프란치스칸 운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따르는”¹⁹⁾ 삶의 형태였다. 이러한 삶의 형태는 당대에는 생소한 삶의 형태였다.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수도생활 공동체들은 사도행전(2,44-7; 4,32-5)에 묘사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을 모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의 질서 정연한 삶의 리듬,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름,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나누는 삶이라는 사도행전이 제시하는 삶의 모델은 수도자들의 초기 공동체부터 당대 최신의 삶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삶의 표준 규범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다른 이들의 관대함에 기대어 살아가는 **완전한 가난** 안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공동체를 삶의 규범으로 삼았다. 이는 아직 교회에 확립되지 않았던 삶으로서 당대에 신선함과 새로움을 불러왔

18) 우리말로 번역된 중세 프란치스코의 전기 중 추천할 만한 글은 다음과 같다. 토마스 셀라노(Thomas Celano),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이재성 옮김, 분도출판사, 192011.; 『성 프란치스코 전기 모음』, 개정판,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한국 관구 옮겨 엮음, 2012, 프란치스코 출판사.

19)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195쪽.

다.²⁰⁾

성 프란치스코와 초기 형제들은 이처럼 당대의 수도생활 형태와는 확연히 다른 형태의 복음적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영성도 발전시켜 나갔다. 이들은 이 새로운 영성 안에서 하느님을 지극히 높은 선(善)이자 가난으로 표현되었다고 정의하였으며, 인간과 피조물의 의미와 존엄성을 재평가하였고,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원천으로부터 나왔다는 우주적 형제 공동체를 이야기하였다. 이 새로운 영성은 이제 후대에 전달되며 영성적·학문적·신비적 전통을 일구어 내었다. 보나벤투라(Bonaventura da Bagnoregio, 1271/1221-1274)와 둔스스코투스(Duns Scotus, 1265/66-1308)는 이러한 전망에서 프란치스칸 학문 전통을 시작하였으며, 폴리노의 안젤라(Angela da Foligno, 1248~1309)와 코르토나의 마르가리타(Margherita da Cortona, 1247~1297)는 신비의 영역에서 프란치스칸 전통의 직관을 확인하였고, 심지어는 이 모든 것에 영감받아 사회 경제적인 이론과 적용을 고안하고 실행한 프란치스칸 운동도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미 전술하였듯이 오늘날의 교회 가르침 안에서도 작지만 튼튼한 고목처럼 서서 많은 것을 나누어 주고 있다.²¹⁾

4. 회칙 「모든 형제들」과 프란치스칸 전통

회칙 「모든 형제들」은 코로나 19 팬데믹이 정점으로 치달던 시기에 반포되었다. 그러나 이 회칙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작성된 글은 아니다. 관련하여 교황 프란치스코는 8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회칙을 쓰는 사이에 예기치 못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었고, 우리의 거짓 안정이 백일

20) 참조: 윌리엄 쇼트, 앞의 책, 30쪽.

21) 프란치스칸 전통 전체에 관한 간략한 묘사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겠다. 윌리엄 쇼트, 앞의 책. 프란치스칸 학문 전통에 관한 개요는 다음을 참조하라. Kenan Osborne(케난 오스본), 프란치스칸 사상의 학문적 전통: 기원과 중심 요소, 김지완 옮김, 프란치스코출판사, 2007.

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문장이 강조하는 바는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사회-경제-정치적 병폐와 잘못된 체계가, 즉 우리의 형제자매됨의 성소를 가로막는 병폐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19항에서는 노인 문제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폐기의 대상은 음식이나 남는 물건만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도 흔히 폐기의 대상이 되고는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19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노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죽어가서는 안되었습니다.” 쓰고 버리는 문화는 「복음의 기쁨」과 「찬미받으소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²²⁾ 이렇게 인간마저 쓰고 버리는 문화 등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된 인류 문화에 코로나 19 팬데믹이 더해지자 그러한 경향성이 더 확장되고 분명하게 드러남을 이야기 한다. 또한 지금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정치적-경제적으로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는 존재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이야기 한다. 관련하여 「모든 형제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초연결되어 있음에도,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들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 파편화가 증명되었습니다”(7항), “코로나 19와 같은 세계적 비극은 우리가 모두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세계 공동체라는 인식을 삼시간에 효과적으로 불러 일으켰습니다”(32항). 요컨대, 회칙 「모든 형제들」은 인류 공동체가 하느님이 창조한 거룩한 형제자매들의 공동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그 형제자매됨의 소명과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영감에 따른 성찰과 대화의 초대를 전한다.²³⁾ 그리고 이 회칙이 이 시대에 제안하는 성찰의 뿌리는 **인간의 존엄성 재확인**, 그리고 **형제애와 공동선으로 누벼져야 할 우리의 온전한 관계성**이다. 관련하여 「모든 형제들」 39항은 다음과 같이 확언한다. “출신, 인종, 종교와는 무관한 모든 인간 존재의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 그리고 최고의 법인 형제적 사

22) 참조: 「복음의 기쁨」, 53항, 「찬미받으소서」 16항, 22항.

23) 참조: 「모든 형제들」, 6항.

량,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확신입니다.”

4.1. 형제애

「모든 형제들」 1항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또한 성 프란치스코가 창설한 ‘작은형제회’라는 수도회 명칭에 새겨져 있는 바와 같이, ‘형제애’는 성 프란치스코와 프란치스칸 전통이 소중하게 실천한 핵심 가치 중 하나이다. 이제 성 프란치스코가 직관하고 프란치스칸 전통이 전개한 형제성(형제애)에 관하여 간략하게 논하도록 하겠다.

4.1.1. 형제애의 기초: 지극히 높은 선이신 하느님

성 프란치스코의 인간과 공동체 이해는 ‘선이신 하느님’ 혹은 ‘가난이신 하느님’에 대한 체험에서 시작된다. 보나벤투라가 말하는 바와 같이 ‘선’은 자기의 무언가를 나눔, 자기의 확산 등으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겠다. 보나벤투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느님은 가장 완벽하시기에, 가장 높으신 선이시다.”²⁴⁾ 또한 “선은 그 자체로 확산적이라면 최고선은 최고로 자기를 확산하는 것이다.”²⁵⁾ 성 프란치스코 역시 당신의 것을 나누시는 선이신 하느님 이해 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신 주 하느님께 모든 좋은 것을 돌려드리고, 모든 좋은 것이 바로 그분의 것임을 깨달으며, 모든 선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립니다.”²⁶⁾ 여기서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이 좋으신 분일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선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하느님은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의 원천이신 지극히 높으신 선으로 정의된다. 하느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천이라

24) 재인용: Thomas A. Shannon, “Generosity in Action,” in *The Franciscan Moral Vision: Responding to God’s Love*, Thomas A. Nairn(ed.), New York: Franciscan Publications, 2013, p.131. [Bonaventure, “Commentary on II Sentences,” I, 2, I, I, resp.].

25) 보나벤투라,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 6, 2, 박장원 옮김, 『프란치스칸 삶과 사상』, 제41호(2014/봄), 54쪽.

26)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195쪽.

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역시 선하며 궁극적으로 하느님에게만 속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예컨대, 성 프란치스코는 심지어 자기의 의지마저도 자기의 것이 아니며, “자기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선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은 선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는 것”²⁷⁾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라 단언한다. 모든 좋은 것은 하느님의 것이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지식 역시 하느님의 것이다. 관련하여 프란치스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고 알고 있는 문자나 알고 싶어 하는 모든 문자를 육신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모든 선을 소유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주 하느님께 말과 모범으로 돌려드리는 사람들은 거룩한 문자의 영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²⁸⁾

선이신 하느님 체험은 곧 가난으로 표현된 하느님의 체험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최고로 나누는 선이신 하느님, 그중에서도 특히 하느님의 육화는 “그 어떤 것도 고수하지 않는, 심지어는 당신의 천상 지위마저도 고수하지 않는”²⁹⁾ 하느님의 너그러운 내어줌 혹은 거룩한 가난으로 체험되었다. 이렇게 하느님은 당신의 자유와 사랑 안에서 늘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선한 분으로 체험되었고,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선물로 인식되었고, 하느님의 궁극적인 주권과 소유권을 계시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프란치스칸 가난이 시작된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고, 바로 그 주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느님에게 다시 돌려드린다는 것이 프란치스칸 가난의 핵심에 있다. 프란치스칸 가난은 무언가를 덜 소유하거나 덜 축적하겠다는 생활의 결심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느님 것이니 그 어느 것도 감히 내 것이라 부르지 않고 소유하지도 않겠다는 삶의 철학이다. 바로 여기에 가난 이해뿐만 아니라 피조물 이해, 인간관계,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 이해에 관한 뿌리가 담겨있다.

27) 같은 책, 272쪽.

28) 같은 책, 276쪽.

29) 윌리엄 쇼트, 앞의 책, 55쪽.

교황 프란치스코도 「찬미받으소서」 11항에서 이와 유사한 전망을 말한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청빈과 검소는 피상적인 금욕주의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곧 현실을 단순히 이용하고 지배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하느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보았던 프란치스코는 당연히 그들을 자신의 지배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청빈과 검소의 삶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었다. 성 프란치스코의 첫 번째 전기 작가인 토마스 첼라노 역시 비슷한 직관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을 형제자매라고 불렀고 아무도 알 수 없는 탁월한 방법과 예민한 감성으로 **사물의 숨겨진 비밀**을 간파하였다.”³⁰⁾ 여기서 표현된 ‘사물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프란치스코가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의 무언가를 직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이신 하느님, 가난으로 표현되신 하느님, 따라서 모든 인간과 피조물 안에 새겨진 하느님의 주권에 대한 관조를 통하여 프란치스코는 피조물, 인간, 이 세상 공동체의 의미를 알아갔다.

요컨대, 성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하느님에 관한 묵상과 직관 안에서 질문의 여지없이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라는 ‘가난’을 살아갔다. 또한 모든 인간과 피조물을 하느님의 거룩한 선물로 받아들였다. 관련하여 프란치스코는 「유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몇몇 형제들을 주신 후** [...]”³¹⁾ 따라서 “모든 형제들은 그 자체로 환대받고 인정받아야 했다. 그 형제가 형제공동체를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효율성의 논리나 이해관계에 따른 계산이 아닌 **선물의 논리**가 중요했다.”³²⁾

4.1.2. 피조물과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죄

모든 좋은 것은 하느님의 것이자 선물이라는 성 프란치스코의

30) 토마스 첼라노, 136쪽.

31)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293쪽.

32) Martin Carbajo Nuñez, *op.cit.*, p.47.

직관과 깨달음 그 자체로 이미 이 세상의 피조물과 인간의 존엄성을 환히 드러낸다. 나아가 프란치스코는 생애 말엽에 완성한 「태양 형제의 노래」를 통하여 각 피조물이 각자만의 독특함으로 하느님을 찬미함에 주목하며 피조물의 성사성을 아름답게 노래한다. 프란치스코는 이 노래를 통하여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피조물을 관상해야 한다고 초대한다.³³⁾ 피조물의 작가는 하느님이기에, 전체 창조계는 사실 하느님에 관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 인간들에게 피조물에 새겨진 하느님의 모상을 찾고, 보고, 관상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다. 관련하여 보나벤투라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프란치스코는 아름다운 것 안에서 아름다움 그 자체이신 그분을 관조하였으며 피조물에 새겨져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는 어디서나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따랐다.”³⁴⁾

이러한 성 프란치스코의 피조물관은 인간을 향한 보편적인 형제애로 연결되었다. 프란치스코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중동 여행 중에서 목격하고 체험한 이슬람 관습 살랏(Salat)에서 영감받은 새로운 종교 행위를 그리스도교에 소개하는데, 이러한 예를 통해서도 프란치스코의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형제애 전망을 볼 수 있다.³⁵⁾ 프란치스코는 십자군 전쟁이 한창 전개 중이던 시기, 즉 이슬람 세력을 적으로 간주하고 십자군에 반대하는 행위를 이단의 증거로 보고 있던 시기에 이슬람의 관습을 그리스도교 안으로 도입했다. 「모든 형제들」 역시 프란치스코의 이집트 술탄 방문을 형제애의 모범으로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십자군으로 특징짓는 역사적 시대에 이루어진 이 여행은 성인이 실천하고자 하던 사랑, 모든 이를 품어 안고자 열망하는 사랑의 위대함을 더욱

33) Cf. Kenan B. Osborne, “The Center of the Spiritual Vision,” in *The Franciscan Moral Vision: Responding to God’s Love*, Thomas A. Nairn(ed.), New York: Franciscan Institute Publications, 2013, p.29.

34) Bonaventura da Bagnoregio (보나벤투라),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9, 1, 권속에 옮김, 분도출판사, 41995, 99쪽.

35)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155쪽.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백성들이 주님께 큰 공경을 바치게끔 매일 저녁 온 백성에게 전달자를 통해서나 다른 신호로 통보하여 그들이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게 하십시오.”

잘 보여 주었습니다.”³⁶⁾

프란치스코는 또한 인간을 묘사하면서 인간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인간의 정신은 아버지와 비슷하게 지어졌음을 분명히 하며, 인간을 하느님의 모상으로 규정한다.³⁷⁾ 그리고 창조 때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선사하신 자리가 ‘낙원’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로 우리의 죄 탓으로 우리 인간이 추락했다고 서술한다.³⁸⁾

보나벤투라는 모든 피조물은 내재적인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 외부로 표현된 외적인 언어 체계라고 정의하면서³⁹⁾, 자취, 모상, 유사함이라는 각각 다른 세 가지 단계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을 담지하고 있다고 말한다.⁴⁰⁾ 자취라는 단계는 모든 피조물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가장 정도가 떨어지는 하느님에 대한 반사라면, 모상이라는 단계는 지성적 존재인 인간에게서만 발견된다. 이 단계는 인간이 삼위일체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음을, 하느님과 일치할 능력이 있는 존재임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유사함이라는 단계는 은총으로 하느님과 일치한 사람들이다.⁴¹⁾ 프란치스코나 보나벤투라 모두 피조물은 하느님의 흔적을 담지한 거룩한 존재들임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인간은 이보다 더 진보한 하느님의 모상성과 유사성이라는 형언할 수 없는 존엄성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성 프란치스코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탓으로 추락하였다. 성 프란치스코는 「권고들」 2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런데 자기 의지를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자기 안에서 주님

36) 「모든 형제들」, 3항.

37)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274쪽. “오, 사람이여, 주 하느님께서 육신으로는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의 모습대로, 그리고 영으로는 당신과 비슷하게 그대를 창조하시고 지어 내셨으니, 주 하느님께서 그대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38) 같은 책, 225쪽. “당신의 모습대로 그리고 비슷하게 만드신 저희를 낙원에 두셨으니, 바로 당신 자신 때문에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의 탓으로 추락했나이다.”

39) Cf. Zachary Hayes, “Bonaventure: Mystery of the Triune God,” in *The History of Franciscan Theology*, Kenan B. Osborne(ed.), New York: The Franciscan Institute, 1994, p.74.

40) Cf. Bonaventure, *Breviloquium* (Works of St. Bonaventure Volume IX), Dominic V. Monti (trans.), Robert J. Karris(ed.), New York: Franciscan Institute Publications, 2005, p.96.

41) Cf. Ilia Delio, et al., *op.cit.*, p.44.

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선을 자랑하는 바로 그 사람은 선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 프란치스코가 의미하는 바는 하느님의 것을 선택해야 하는 의지를 내 것으로 소유하면, 우리의 첫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프란치스코가 지극히 우려하는 가장 심각한 죄는 올바르게 가난하지 못한 죄, 즉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돌려드리지 않고 그것을 우리 인간의 것으로 전용하는 죄이다.⁴²⁾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우리 인간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잘못된 소유의 반대어인 참된 ‘가난과 겸손’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한다.⁴³⁾

보나벤투라 역시 인간의 죄가 올바르게 가난하지 못함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관련하여 프란치스칸 영성 신학자 일리아 델리오(Illia Delio, 1955~)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보나벤투라의 사상 안에서 죄는 하느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몸은 구부러지고, 지력의 눈은 멀며, 무한히 많은 질문에 얽힌 채로 우리 자신을 향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선(혹은 사랑)을 찾아 이 세상을 떠돌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그 선(혹은 사랑)을 우리 자신 안에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성의 눈이 멀고 갈망이 왜곡된 우리 인간은 이제 전혀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거머쥐기 시작한다. 전적으로 하느님에게 의존하는 그러한 가난한 인간이 되는 것과는 반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작은 하느님으로 만들고 우리를 우주의 중심이 되게 한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만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고, 우리에게 정당하게 속하지 않은 것을 다른 이로부터 취한다. 우리가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선물이 공동선의 세상을 발가벗길 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난의 체계를 창조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철저한 의존 관계라는 참된 가난에서 탐욕의 잘못된 가난으로 옮겨간다.⁴⁴⁾

이러한 프란치스칸적인 피조물과 인간관은 교황 프란치스코의

42) Cf. Thaddée Matura, *Francis of Assisi: The Message in His Writings*, Paul Barret (trans.), Roberta A. McKelvie/ Daria Mitchell(eds.), New York: Franciscan Institute Publication, 2004, p.98.

43) Cf. *ibid.*, p.169.

44) Illia Delio, *Clare of Assisi: A Full of Love*, Cincinnati, Ohio: St. Anthony Messenger Press, 2007, p.18.

가르침 안에서도 메아리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찬미받으소서」 11항은 성 프란치스코의 청빈과 검소가 단순히 피상적인 금욕주의가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보았기에, 즉 모든 것이 하느님의 주권을 계시하고 있다는 점과 하느님 선의 선물임을 알아보았기에 따라온 태도라는 점을 함축한다. 「찬미받으소서」 84항은 이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물질세계 전체는 하느님의 사랑, 곧 우리에게 대한 무한한 자애를 나타냅니다.” 또한 「찬미받으소서」 239항은 성 보나벤투라를 인용하면서 “모든 피조물은 그 안에 고유한 삼위일체 구조를 담고 있다”고 선언하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상성을 확인한다.

인간도 피조물이기에 모두 하느님의 주권을 계시하는 존재인 동시에 하느님 선의 자애를 나타내는 선물이며, 삼위일체 구조를 담고 있는 존엄한 존재들이다. 나아가 「모든 형제들」은 오랜 교회 가르침에 따라 인간이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임을 분명히 한다. 동시에 그러한 존엄한 존재가 “타인의 소유물로 전락되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받는 것”을 통탄한다.⁴⁵⁾ 또한 “가난한 이들, 장애인, 태아처럼 ‘아직 쓸모없는 존재’, 노인처럼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의 이권을 위해 희생되는 죄스러운 현실을 지적한다.⁴⁶⁾ 나아가 인간 존재마저도 폐기의 대상이 되는 아픈 현실을 바라보도록 이끈다.⁴⁷⁾ 이 모든 죄와 잘못의 근원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느님 선의 자애로운 선물이 아닌 ‘소비재’로 바라보는 인간의 왜곡된 시각이 자리하고 있다. 성 프란치스코와 프란치스칸 전통이 강조하듯이,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의 것이어야 하고, 이 세상에 펼쳐진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선과 자애의 선물로 체험되고 대우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느님의 선물을 ‘내 것으로 전용’하는 부당함의 죄를 짓는 가운데,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나의 필요와 효용성에 따라 사용한 후 버릴 수 있는 소비 품목 정도로 격하시키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따

45) 「모든 형제들」, 24항.

46) 같은 책, 18항.

47) 같은 책, 19항.

라서 아무리 개방적인 세계화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경제가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인류는 끝내 형제자매가 되지 못하고 사실상 폭력과 분리와 고립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하여 「모든 형제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환원주의적인 인간학 전망들은 물론, 거리낌 없이 착취와 유기와 살인까지 불사하는 이윤에 기초한 경제 모형이 조장하는 무수한 형태의 불의가 현대 세계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일부는 풍족하게 살아가는 반면, 다른 일부는 자기 존엄을 부정당하거나 경시당하거나 짓밟히면서 그 기본권을 무시당하거나 침해당하고 있음을 봅니다.⁴⁸⁾

전쟁, 테러, 인종적 종교적 박해,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많은 침해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으로서 특정 이해관계에 적합한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⁴⁹⁾

소비 지향적 생활양식에 대한 집착은 [...] 폭력과 상호 파괴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어리석게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⁵⁰⁾

4.1.3. 무상성(Gratuitas)의 인간

성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형제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내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상답게 자기 자신을 관대하게 내어주는 참된 가난의 무상성으로 연결되어 있기를 희망하였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권고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형제가 건강하여 보답해 줄 수 있을 때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만큼, 형제가 앓고 있어 **보답을 받을 수 없을 때도**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좋은 복됩니다.”⁵¹⁾

“무상성은 보답을 생각하지 않는 나눔, 내어줌”⁵²⁾을 의미한다. 이 대가 없는 내어줌은 우선 끊임없는 자기 나눔과 자기 확산적인 선

48) 같은 책, 22항.

49) 같은 책, 25항.

50) 같은 책, 36항.

51)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289쪽.

52) Luigino Bruni(루이지노 브루니), 『콤무니타스 이코노미-모두를 위한 경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서울: 복돋움, 2020, 33쪽.

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되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상인 우리 인간에게도 ‘무상성’의 능력이 선천적으로 새겨져 있다.⁵³⁾ 성 프란치스코는 이 무상성을 모든 관계의 기초로 보았다.⁵⁴⁾ 또한 이 무상성의 관계는 자기 자신의 필요를 온전히 개방하여 타인의 자비에 의존하는 상호 연결성의 관계로 확장되었다. 관련하여 프란치스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고 각자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남에게 거り낌 없이 드러내어, 그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기르듯이 각자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따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고 기를 것입니다.”⁵⁵⁾ 나아가 이 무상성이라는 자발적인 내어줌, 혹은 자발적인 가난을 ‘모든 이에게 순종’이라는 프란치스코 관계성의 원칙으로 확장되었다. 관련하여 프란치스코는 「유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으며 **모든 이에게 복종**하였습니다.”⁵⁶⁾ ‘모든 이에게 복종’하였다는 성 프란치스코와 초기 형제들의 고백은 그들이 꿈꾸고 만들어 나가던 ‘형제 공동체’의 핵심에 참된 자발적 가난의 구체화, 혹은 무상성의 실천이 있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캐나다의 프란치스코 역사학자 데이빗 플러드(David Flood)는 이러한 초기 형제들의 태도가 수도회 외부 관계망 안에서도 더 형제적이고, 더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 관계망을 건설하였다고 논한다.⁵⁷⁾

이러한 무상성의 중요성은 최근 교회 가르침 안에서도 잘 드러난다. 「진리 안의 사랑」은 **무상성의 원칙이 형제애의 표현**이라고 규정하며⁵⁸⁾, 경제 주체들 사이에 “무상성이 없으면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⁵⁹⁾고 단언한다. 즉, 참된 경제 공동체의 중심에는 ‘이익’이 아니라 ‘무상성을 통한 형제성 구현’이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

53) 참조: 「찬미받으소서」, 239항.

54) Cf. Martin Carbajo Nuñez, *op.cit.*, p.47.

55)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206쪽.

56) 같은 책, 293쪽.

57) Cf. David Flood, “Franciscans at Work,” *Franciscan Studies*, 59 (2001), p.33.

58) 「진리 안의 사랑」, 36항.

59) 같은 책, 38항.

서, 우리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형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교황 프란치스코 역시 선대 교황과 뜻을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무상성을 생태적 회개의 중요한 주제로 제시한다. “이러한 회개에는 여러 가지 태도가 필요한데 [...] 먼저 감사와 무상성의 태도가 있습니다.”⁶⁰⁾ 나아가 이 무상성으로 보편적 형제애를 건설한다고 강조한다. “**형제애는 대가가 없는 것**이어야만 하기에 [...] 바로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바람과 태양과 구름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보편적 형제애를 논할 수 있습니다.”⁶¹⁾

「모든 형제들」은 인간의 무상성이 인간 완성의 조건임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한다. “인간 존재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으면 살아가고 발전하며 충만에 이를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⁶²⁾ 나아가 140항은 “형제적 무상성이 부재한 삶은 우리가 준 것과 그 대가로 돌려받는 것을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숨 가쁜 상거래 형태를 취하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형제 공동체에서 무상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함축적으로 설명한다.

4.2. 공동선의 형제 공동체

4.2.1. 형제성의 사회적 진화: 공동선

성 프란치스코의 직관과 영성에서 출발한 프란치스칸 전통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선이신 하느님 체험’,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기에 하느님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가난의 삶’, ‘모든 것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감사의 삶’, ‘자기 자신을 대가 없이 타인에게 내어주는 무상성의 삶’을 통하여 수도원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도 하나의 형제 공동체로 인식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형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모든 이에게 순종’한다는 심화된 무상성의 실천은 새로운

60) 「찬미받으소서」, 220항.

61) 같은 책, 228항.

62) 「모든 형제들」, 87항.

사회적 맥락을 지닌 형제성의 공동체를 구현하기 시작하였다.⁶³⁾ 또한 모든 좋은 것은 하느님의 것이므로 마땅히 하느님에게 돌려야 한다는 프란치스칸 가난 영성은 ‘분배 정의’라는 사회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⁶⁴⁾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을 하느님에게 돌려드린다는 가난은 곧 모든 좋은 것을 하느님의 뜻과 사랑과 정의에 걸맞게 이 세상으로 돌린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화의 순환에서 첫 자리는 마땅히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복음서 여기저기서 강조되듯이 가장 미천한 이에게 베푸는 형제적 나눔이 바로 주님께 해 드리는 것이며, 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가 상속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동냥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유산이며 정당한 권리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얻어 주셨습니다.”⁶⁵⁾

이 같은 전망에 따라 중세 프란치스코 형제들은 사회 공동체의 형제성 증진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들의 공헌은 경제 분야에서 탁월하게 드러났다. 베드로 요한 올리비(Pierre de Jean Olivi, 1248~1298), 둔스 스코투스, 시에나의 베르나르디노(Bernardino da Siena, 1380~1444), 펠트레의 베르나르디노(Bernardino da Feltre, 1439~1494) 등 프란치스코 형제들은 형제적 사회 공동체 증진을 위하여 단순한 돈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종갓돈으로서의 자본을 분리하여 제시하였고, 이익, 시장, 상인 등의 경제 개념도 형제성 확보라는 전망 아래 재정립하였다. 또한 축적이나 막힘없는 끊임없는 재화와 부의 순환을 강조하면서 가난한 이들도 순환 중인 재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탈락되거나 소모되거나 배제되는 이들 없이 모든 형제자매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⁶⁶⁾

모두가 형제자매라는 확신, 그러므로 그 누구도 탈락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형제성의 원칙은 이제 사회 안에서 ‘공동선’이

63) Cf. Flood, *op.cit.*, p.34.

64) Cf. *ibid.*, p.55.

65)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206쪽.

66)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김일득, 앞의 책, 105-132쪽.

라는 단어로 드러났다. 중세 프란치스칸들은 바로 이 형제적 공동선의 완성을 위하여 사회 경제 분야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프란치스칸들은 ‘공동선’을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관계시키는 선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공동선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는 관계의 선, 공동 삶에 적합한 선을 의미하였다.⁶⁷⁾ 나아가 공동선이라는 개념을 사회 경제적 담론 안에서 처음 이야기한 사람들 역시 프란치스칸 형제들이었다.⁶⁸⁾ 프란치스칸들은 바로 이 형제적 공동선을 담보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방식을 최초로 고안하였고, 15세기에는 첫 번째 주식회사를 이탈리아에 설립하기도 하였다.⁶⁹⁾

교황 프란치스코는 2차 바티칸 공의회 of 가르침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공동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동선은 집단이든 구성원이든 개인이든 자기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의 조건의 총화입니다.”⁷⁰⁾ 나아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제외되지”⁷¹⁾ 않는 우주적 보편선의 형제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사회 전체, 특히 국가는 공동선을 수호하고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⁷²⁾고 강조한다. 또한 “공동선의 원리는 곧바로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로 연대와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으로 전환”⁷³⁾되고, 미래 세대에게까지 확장된다고 가르치며⁷⁴⁾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형제적 공동선의 정신을 분명히 한다.

「모든 형제들」에서는 ‘공동선’이라는 단어보다는 형제애, 형제성, 이웃 등의 단어로 보편적인 공동선을 표명한다. 예컨대, 110항은 “우리의 경제 사회 체제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만들지 않고 한 사

67) Cf. Stefano Zamagni, *op.cit.*, 88.

68) Cf. *ibid.*, 88.

69) Cf. Stefano Zamagni, *The Civil Market: Medieval Franciscan Ideas to Solve 21st Century Economic Problems* (Clemens Lecture Series 2009), New York: Saint John’s University, 2009, p.5.

70) 「찬미받으소서」, 156항.

71) 같은 책, 92항.

72) 같은 책, 157항.

73) 같은 책, 158항.

74) 같은 책, 159항.

람도 저버리지 않을 때에만 [...] 보편적 형제애의 축제를 경축할 수” 있다고 가르치며 모두를 포괄하는 공동선의 세상을 제안한다. 나아가 120항은 이전의 가르침의 연장선상에서 사유 재산 역시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칙에 따라 공동의 사회적 기능에 이바지해야 함을, 즉 공동선에 이바지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국경을 초월한 공동선 혹은 형제애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더욱 커다란 기회의 땅에서 태어난 다른 이들이 누리는 특권은 물론이고 자신의 출생지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소외된 채로 남겨질 수 없습니다.”⁷⁵⁾ 이런 관점에서 기업가들의 활동도, 각 나라의 영토의 재화도 모두 보편적이고도 형제적인 공동선을 지향해야 함을 가르친다.⁷⁶⁾ 이렇게 교황 프란치스코는 성 프란치스코로부터 시작되어 프란치스칸 전통이 일구어 온 형제성과 공동선의 원칙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4.2.2. 전체선과 공동선

전술하였다시피 프란치스칸 전통은 천부적인 인간 존엄성과 무상성을 기초로 그 누구도 탈락되거나 소모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형제 공동체를 만드는 시민 경제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 프란치스칸 시민 경제의 목표는 공동선의 창출이었다. 그런데 공동선이라는 목표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국부론』 이후 ‘전체선’이라는 새로운 개념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전체선과 공동선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체선은 각 개별자의 선을 ‘덧셈’으로 총합을 내는 방식이다. 이 방식 안에서는 일부 개별자들이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선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총합 값이 긍정 값이면 성공한 것으로 자평한다. 대부분의 현대 사회 체계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전체선의 논리를 따라 진행된다. 따라서 누군가가 혹은 일부 집단의 선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나 혹은 심지어 희생

75) 「모든 형제들」, 121항.

76) 참조: 같은 책, 122~124항.

되는 상황도 용인되고 있다. 그러나 프란치스칸들이 전개한 시민 경제의 목표는 전체선과는 확연히 다른 ‘공동선’이었다. 공동선은 ‘곱셈’의 결실이다. 따라서 모든 개별자의 수익이나 선이 반드시 긍정 값이어야만 의미가 있다. 만약 어떤 개별자나 일부 집단의 선이 0으로 산출된다면, 전체 값이 0으로 수렴되고, 따라서 그 어떤 이익이나 선을 창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 주체도 빠짐 없이 모두가 0이 아닌 긍정 값을 산출하였다면, 덧셈을 통한 단순 총합을 훨씬 뛰어넘는 곱셈의 결실이 산출된다. 따라서 공동선을 목표로 하는 사회 체계에서는 그 어떤 개별자나 집단의 희생도 용인하지 않는 가운데 훨씬 더 강력하고도 따뜻한 사회적 이익과 선을 창출한다.⁷⁷⁾

교황 프란치스코 역시 이러한 프란치스칸 전통의 공동선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황 프란치스코는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만들지 않는’ 형제적 공동선의 세상을 제안한다.⁷⁸⁾ 「모든 형제들」은 이 원칙을 경제, 전 지구적 분배, 사유 재산, 문화 등 거의 모든 사회 체계에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공동선을 지향하는 ‘더 좋은 정치’가 경제에 복속됨 없이 뿌리내려야 함을 강조한다.⁷⁹⁾ 모든 이들을 위한 공동선 추구가 아닌 단기적인 금융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장, 그리고 소위 파급 효과와 낙수 효과 등은 지금 우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만 확산하고 있기에⁸⁰⁾, 공동선을 지향하는 정치가 필요함을 역설한다.⁸¹⁾ 나아가 모든 이의 선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이웃으로 여기는 행태를 특정 이익을 추구하는 동업자 패거리 행태로 경고한다. 일부 구성원의 희생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혹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전체선의 원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이 같은 패거리 행태

77) Cf. Stefano Zamagni, *The Civil Market*, p. 5-6.

78) 참조: 「찬미받으소서」, 92항.; 「모든 형제들」, 110항.

79) 「모든 형제들」, 177항.

80) 참조: 같은 책, 168항.

81) 참조: 같은 책, 178항.

가 무의식중에 만연하여 우리의 형제자매 됨의 성소와 이웃이라는 단어를 본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혹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⁸²⁾ 이런 이유로 교황 프란치스코는 “사회는 공동선의 추구를 향하여 걸어가야 하고, 이 목적에서 출발하여 그 정치적 사회적 질서, 관계의 구조, 인간적인 계획을 언제나 재편해야”⁸³⁾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리’는 개개인의 총합보다 강하다고 강조하면서 전체가 부분보다 더 크고, 전체는 그 부분들의 단순한 총합보다 더 크다는 이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⁸⁴⁾

결론

「모든 형제들」은 사마리아인의 구체적인 모범을 통하여 어떻게 한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즉 다른 이들의 약함을 자기 일로 생각하여 가까이 다가와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고 회복시켜 공동선을 이루는 형제애의 실천을 제안한다.⁸⁵⁾ 성 프란치스코와 초기 동료 형제들은 당대의 버림받은 이들인 나환자들 곁에서 매일같이 일하며 살아갔다. 성 프란치스코가 직접 고백하는 회개의 유일한 계기는 나환자였다. 몸소 나환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해 갔다. 관련하여 성 프란치스코는 「유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님께서 나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를 시작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죄 중에 있었기에 나에게는 나병환자들을 보는 것이 쓰디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셨고 나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비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서 떠나올 무렵에는 나에게 쓴맛이었던 바로 그것이 도리어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습니다.”⁸⁶⁾

82) 참조: 같은 책, 102항.

83) 같은 책, 66항.

84) 참조: 같은 책, 78항.

85) 참조: 같은 책, 67항.

86)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291쪽.

교황 프란치스코와 프란치스칸 전통이 제안하는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참된 형제적 공동선의 관계망은 우선적으로 배척되고 버려진 이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⁸⁷⁾ 성 프란치스코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그 안에서 행한 우리의 형제적 공동선의 실천은 우리를 치유하는 하느님의 자비로 새롭게 체험될 것이며, ‘형제자매, 우리’라는 관계망을 단순한 사회적 연대를 넘어서는 하느님이 원하는 복된 은총의 관계망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도 ‘쓴 맛이 단 맛으로 바뀌는 체험’을 통하여 “그 누구도 혼자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함께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⁸⁸⁾ 밝히 드러내 보일 것이다. 프란치스칸 전통 안에서 구원은 ‘죄의 극복’ 혹은 ‘무언가로부터 구해진 상태’로 이해되기보다는 ‘하느님 창조 업적의 총체를 위하여 온전하게 만들어진 상태,’ 즉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었다.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여정은 다른 모든 형제자매와 피조물을 이 세상에서부터 평화로운 ‘완성’으로 끌어안는 여정으로 이해되었다.⁸⁹⁾ 즉, 구원은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각 형제자매와 피조물이 빠짐없이 각자의 선을 충만하게 발산하는 상태, 온전하게 만들어진 상태를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 누구도 혼자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함께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외침을 지금 어떻게 실현할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 필요한 형제애와 공동선의 역할과 중요성 역시 깊이 새길 수 있을 것이다.

87) 참조: 「찬미받으소서」, 158항.

88) 「모든 형제들」, 32항.

89) Cf. Ilia Delio, “Revisiting the Franciscan Doctrine of Christ,” *Theological Studies*, 64 (2003), p.18.

[참고 문헌]

1. 교회 문헌

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200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프란치스코,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_____,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_____,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01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

2. 프란치스칸 원천사료

Bonaventure, *Breviloquium* (Works of St. Bonaventure Volume IX), Monti, Dominic V.(trans.), Karris, Robert J.(ed.), New York: Franciscan Institute Publications, 2005.

_____(보나벤투라),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권숙애 옮김, 분도출판사, ⁴ 1995.

_____(보나벤투라),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 6, 2, 박장원 옮김, 『프란치스칸 삶과 사상』, 제41호(2014/봄), 16~77쪽.

Francesco d'Assisi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아씨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글』,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한국 관구 옮겨 엮음, 프란치스코출판사, ²2014.

Thomas Celano(토마스 첼라노),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이재성 옮김, 분도출판사, ¹⁵2011.

『성 프란치스코의 전기 모음』, 개정판,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한국 관구 옮겨 엮음, 프란치스코출판사, 2012.

3. 단행본

Delio, Ilia, *Clare of Assisi: A Full of Love*, Cincinnati, Ohio: St. Anthony Messenger Press, 2007.

_____/ Warner, Keith Douglass/ Wood, Pamela, *Care for Creation: A*

- Franciscan Spirituality of the Earth*, Cincinnati, Ohio: St. Anthony Messenger Press, 2008.
- Matura, Thaddée, *Francis of Assisi: The Message in His Writings*, Barret, Paul(trans.) McKelvie, Roberta A./ Mitchell, Daria(eds.), New York: Franciscan Institute Publication, 2004.
- Núñez, Martin Carbajo , *A Free and Fraternal Economy: The Franciscan Perspective*, Phoenix, Arizona: Tau Publishing, 2017.
- Todeschini, Giacomo, *Franciscan Wealth: From Voluntary Poverty to Market Society*, Melucci, Donatella(trans.), F. Cusato, Michael/ Godet-Calogeras, Jean-François/ Mitchell, Daria(eds.), New York: Franciscan Institute, 2009.
- Zamagni, Stefano, *The Civil Market: Medieval Franciscan Ideas to Solve 21st Century Economic Problems* (Clemens Lecture Series 2009), New York: Saint John's University, 2009.
- Bruni, Luigino (루이지노 브루니), 『컴뮤니타스 이코노미-모두를 위한 경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서울, 북돋움, 2020.
- Osborne, Kenan (케난 오스본), 프란치스칸 사상의 학문적 전통: 기원과 중심 요소, 김지완 옮김, 프란치스코출판사, 2007.
- Short, William (윌리엄 쇼트), 『가난과 기쁨: 프란치스칸 전통』, 김일득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2017.
- 김일득, 『프란치스칸 경제: 그 중심 영성과 증세 프란치스칸들의 가르침과 실천, 그리고 현대 경제를 위한 응답』, 서울, 프란치스코출판사, 2016.

4. 편집단행본

- Hayes, Zachary, “Bonaventure: Mystery of the Triune God,” in *The History of Franciscan Theology*, Osborne, Kenan B.(ed.), New York: The Franciscan Institute, 1994, 39~125.
- Osborne, Kenan B., “The Center of the Spiritual Vision,” in *The Franciscan Moral Vision: Responding to God's Love*, Naim, Thomas A.(ed.), New York: Franciscan Institute Publications, 2013, 23~50.
- Shannon, Thomas A. “Generosity in Action,” in *The Franciscan Moral Vision: Responding to God's Love*, Naim, Thomas A.(ed.), New York: Franciscan Publications, 2013, 129~160.
- Zamagni, Stefano, “Globalization: Guidance from Franciscan Economic Thought and Caritas in Veritate,” in *The True Wealth of Nations: Catholic Social Thought*

and Economic Life, Finn, Daniel K.(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63-93.

5. 정기간행물

Delio, Ilia, “Revisiting the Franciscan Doctrine of Christ,” *Theological Studies*, 64 (2003), 3-23.

Flood, David, “Franciscans at Work,” *Franciscan Studies*, 59 (2001), 21-62.

6. 인터넷 자료

Francis and Clare of Assisi: Early Documents,

<https://www.franciscantradition.org/francis-of-assisi-early-documents/the-saint/writings-of-francis/the-undated-writings/the-admonitions/147-fa-ed-1-page-131>(접속일: 2021.11.26).

Perry, Michael, Fratelli Tutti: Message of the Minister General,

<https://ofm.org/blog/fratelli-tutti-message-of-the-minister-general/>(접속일: 2021.12.9).

국문초록

본고는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이 제시하는 근본정신이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과 프란치스칸 전통에 기반하고 있음을 논한다. 또한 이전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등에도 프란치스칸 전통이 반영되어 있음도 함께 논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회칙 「모든 형제들」 제목 자체가 담고 있는 프란치스칸 맥락을 묘사한 후, 본고의 전제가 되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프란치스칸 전통을 간략하게 묘사한다. 이후 회칙 「모든 형제들」이 이 시대에 제안하는 질문과 성찰의 뿌리가 인간의 존엄성 재확인 과 형제애와 공동선으로 누벼져야 할 우리의 온전한 관계성임을 확인하고, 프란치스칸 전통 안에서 발전한 형제애와 공동선을 고찰하는 가운데 회칙 「모든 형제들」과 최근의 다른 교회 가르침 안에 녹아있는 프란치스칸 맥락을 살펴본다. 이 작업 중에 형제애의 기초가 되는 선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프란치스칸적 이해, 피조물과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죄, 무상성의 인간, 형제애의 사회적 진화로서의 공동선, 현대 시대의 주류 체계인 전체선과 프란치스칸 공동선의 맥락을 비교한다. 이 모든 고찰 안에서 「모든 형제들」 안에 담겨있는 프란치스칸 맥락을 확인하고, 결론으로 ‘그 누구도 혼자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함께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종말론적 외침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구체화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소명으로 제안한다.

▶ 주제어: 모든 형제들, 무상성, 형제애, 공동선, 프란치스칸